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ハングル教室に参加して

メタデータ	言語: jpn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李, 昌勲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1870

ハングル教室に参加して

李 昌勲

終わってみれば、私からまず頭を下げて感謝の気持ちを表さなければならぬほどたいへんよい経験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毎週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真夏の暑い天気の中でも、日曜日をボランティアとしてハングル教室を担当させていただき、韓国やハングルに関心をお持ちくださっている大勢の方々と接し、いろんなことについて話げできたことは、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はじめは、そんなにもたくさんの日本人の方々が韓国の文化に興味を持っているとは思わなかったです。小さくて可愛らしいお子さんから世間の苦勞を通り抜けてきた証の顔に皺だらけのおばあさんまで、本当にたくさんの方が来てくださり、ハングル教室をいっぱい埋めてくれました。

ご自分のお名前を丁寧にハングル文字で書いている姿を見ていると、なにも役に立たなかった私でしたが、みなさんに少しでもたくさんの韓国のことを教えたい、伝えたいとの気持ちが燃えてきました。30分の時間でしたが、本当にあっという間に過ぎてしまい残念でした。私より専門的な知識をお持ちの先生方がいらっしゃったら、来られたお客さんにもっとよりよい豊富な知識を伝えられたのではないかと心残りです。また、運営上の時間の段取りでそうなったと思いますが、ハングル教室の授業時間とマダンの公演の時間が重なってしまい、ハングル教室の途中に残念な顔で公演を見に行くお客さんもたくさんおられました。

ハングル教室をもっと活かして、いろんな韓国のことをお客さんに知らせる場所として使ったらどうだったかなと思います。2階に体験コーナーがありましたが、ただ単に韓服などを試着したり触れたりするばかりではなく、そういったものについてハングル教室で前もって、もしくは試着した後でも、生の声でまたは画像でも韓服の由来や現在の韓国人たちがどのように扱っているのかなど、もっといろんな面を皆さんに伝えら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教室という特別な場を利用して、ハングルだけでなく、もっとたくさん内容を皆さんに紹介できたならよ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先生の机や生徒の個人ロッカーなど、今の小学校の教室を見て、私の時とはずいぶん変わったなと個人的に感じました。でも、教室には、生徒たちが丁寧に作り上げた作品とか、黒板やチョークなど、やはり時間が経っても変わらない懐かしいものがたくさんでした。それは日本とも変わらない様子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また、明るい生徒たちが先生の指示に従って学んでいる姿は、いつになっても、どこにおいても、同じ光景ではないか、皆こういった同じ共通点を持っているんだなとつくづく感じました。

今回の「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で、日本人の韓国への関心がどんなに高いかを肌で感じました。韓国でも同じくこうした特別展示会が開催されたと聞きましたが、果たし

て向こうではどのような反応があったのかちょっと気になります。本当にいろいろ勉強
させていただいて感謝いたします。有り難うございました。(大阪大学大学院 博士課程
在学)

한글 교실에 참가하여

이 창훈

끝나고 보니, 제 쪽에서 우선 머리 숙여 감사의 기분을 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대단히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매 주는 아니었지만, 한여름의 더운 날씨에서도, 일요일을 자원봉사자로서 한글교실을 담당하며, 한국과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과 만남을 가지며, 여러 가지에 대해 대화할 수 있었던 점은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도 많은 일본인이 한국의 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작고 귀여운 어린이부터 세상의 힘든 일들을 겪어온 중년의 주름이 가득한 얼굴의 할머니까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 주시고, 한글교실을 가득히 채워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한글 문자로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던 저였으나,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한국의 많은 일들을 알려드리고, 전해드리고 싶은 기분이 가득해졌습니다. 30 분의 시간이, 정말로 눈 깜짝할 순간에 지나가 버려 서운했습니다. 저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선생님들이 계셨다면, 오신 손님들에게 보다 좋은 풍부한 지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 마음에 남습니다.

또, 운영상의 시간 조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글교실의 수업시간과 마당 공연의 시간이 겹쳐져, 한글교실 도중에 서운한 표정으로 공연을 보러 가는 손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한글교실을 좀더 살려, 여러 가지 한국의 일들을 손님들에게 알리는 장소로서 썼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2 층에 체험 코너가 있었습니니다만, 단순히 한복 등을 시착하거나 만져보거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한글교실에서 미리, 아니라면 시착해 본 다음이라도, 직접 혹은 영상으로 한복의 유래와 현재의 한국인들이 한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등, 좀더 여러 가지 면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교실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이용하여, 한글뿐만 아니라 좀더 많은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책상과 학생의 개인 락커 등, 지금의 초등학교 교실을 보고, 제가 학교 다니던 때와는 상당히 달라졌음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이라든지, 칠판이나 분필 등, 역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점은 일본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밝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배우고 있는 모습은, 언젠가 되어도, 어디에 있어서도 같은 광경이 아닐까, 모두 이러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이번의 「2002년 서울 스타일」에서,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특별전시회가 개최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과연 거기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까가 궁금합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로 공부할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사카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